

경기도,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고영규

경기도가 비무장지대, DMZ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DMZ는 남북 휴전선을 중심으로 동서 길이 248km, 면적 886km², 폭 4km로 설정돼 있으며, 희귀식물은 물론 멸종위기 동물 등 다양한 자연생태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기초 자료 조사와 정리 등을 거쳐 2022년까지 등재 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영규 midusyk@obs.co.kr

경기도,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경기도가 비무장지대, DMZ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DMZ는 남북 휴전선을 중심으로 동서 길이 248km, 면적 886km², 폭 4km로 설정돼 있으며, 희귀식물은 물론 멸종 위기 동물 등 다양한 자연생태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도는 우선 기초 자료 조사와 정리 등을 거쳐 2022년까지 등재 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DMZ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추진

DMZ는 희귀식물?멸종 위기 동물 등 다양한 자연생태 보존
[KFM경기방송 = 윤종화 기자]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우선 기초 자료 조사 및 정리 등을 거쳐 2022년까지 등재 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DMZ는 남북 휴전선을 중심으로 동서 길이 248km(경기지역 103km), 면적 886km²(경기지역 153km²), 폭 4km(경기지역 2km)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휴전 이후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희귀식물은 물론 멸종 위기 동물 등 다양한 자연생태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도는 이 지역이 유네스코가 요구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만한 가치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와 내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조사 보고서 등 DMZ와 관련 각종 연구 자료와 지자체 및 정부의 관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입니다.



첨부 믿고듣는 뉴스, kfm 경기방송.png 470.9KB 0

기호일보

도, DMZ 세계유산으로 2022년까지 등재

경기도가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6일 도에 따르면 DMZ와 관련된 기초 자료 조사 및 정리 등을 거쳐 2022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DMZ가 유네스코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만한 가치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와 내년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조사 보고서 등 DMZ와 관련 각종 연구자료와 지자체 및 정부의 관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보고서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는 물론 강원도, 일선 시·군,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측 과도 공조해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한 이후 관련 포럼 참석과 생태환경조사 관계자 회의를 갖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DMZ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남북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전쟁과 역사,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교육장 및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만의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북한까지 손잡고 함께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DMZ는 남북 휴전선을 중심으로 동서 길이 248km(경기지역 103km), 면적 886km²(경기지역 153km²), 폭 4km(경기지역 2km)로 설정돼 있다. 휴전 이후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희귀식물은 물론 멸종 위기 동물 등 다양한 자연생태가 잘 보존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생물학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욱 기자 panic82@kjhilbo.co.kr

DMZ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문화유산' 추진

경기도가 남북 평화협력 기류 속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8월 도에 따르면 도는 기초 자료 조사 및 정리 등을 거쳐 2022년까지 DMZ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DMZ는 휴전 이후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희귀식물, 멸종 위기 동물 등 다양한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지역이다. 남북 휴전선을 중심으로 동서 길이 248km(경기지역 103km), 면적 886㎢(경기지역 153㎢), 폭 4km(경기지역 2km)로 설정돼 있다.

도는 해당 지역이 유네스코가 요구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이곳을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와 내년에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태조사 보고서 등 DMZ와 관련 각종 연구 자료와 지자체 및 정부의 관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할 계획이다.

경기도, 기초 자료 조사·정리 2022년까지 등재 신청 계획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교부와 국방부 등 중앙 정부는 물론 강원도, 일선 시·군,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북한 측과도 적극적으로 공조, DMZ 북측 지역까지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DMZ가 세계유산으로 등

재되면 남북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전쟁과 역사,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교육장 및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도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와 지자체, 북한이 손잡고 함께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2022년 등재신청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